



발행일 2020년 5월 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Parliamentary Diplomacy: Trends and Analysis

## 1. 일본 의회,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 예산심의

2020년 4월 7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新型コロナウイルス等対策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근거하여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도쿄도(東京都) 등 7개 지역의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나아가 4월 16일 긴급사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후, 각 지역은 지사의 권한과 판단으로 주민의 외출자제 요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 임시 병원설치를 위한 토지의 강제사용,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판매 요청 및 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20일 「코로나 19 감염증 긴급경제대책(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을 발표하였다.<sup>1)</sup>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출 48.4조 엔, 민간지출 포함 117.1조 엔 규모로서 역대 최대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 경제대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4% 정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경제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의 긴급지원정책과 사태수습 후 수요의 환기 및 사회변혁을 위한 정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긴급지원정책으로는 감염증 확대방지책과 의료제

공 체제의 정비, 치료약의 개발, 고용의 유지, 중소기업지원, 생활지원, 세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사태수습 후 회복지원으로는 관광·운수·요식업 등에 대한 지원, 서플라이 체인개혁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조치(2020.4.20)는 종전의 조치(2020.4.7)에 비해 가계와 중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현금 지급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종전의 조치는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층 및 세대주 수입이 급감한 중·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30만 엔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여당 내 공명당 등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하여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출이 반감된 중소기업에게는 200만 엔, 개인 사업주에게는 100만 엔을 상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 및 사회 보험료의 납부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27일 코로나 19관련 경제대책 등을 포함한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 30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본 정부는 신속히 현금 급부를 실시할 예정이나,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박명희 입법조사관

1) 首相官邸, 首相官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 2020年4月20日.

## II.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향후 과제

### 1. 들어가며

지난 4월 18일 이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 미만에 불과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생산 활동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 역시 상당한데 그 이유는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의존적인 경제 성장 경로를 가진 나라이므로 세계 경제의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역 연계성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므로 이 글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과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회외교 차원에서 고려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및 동향

#### 1)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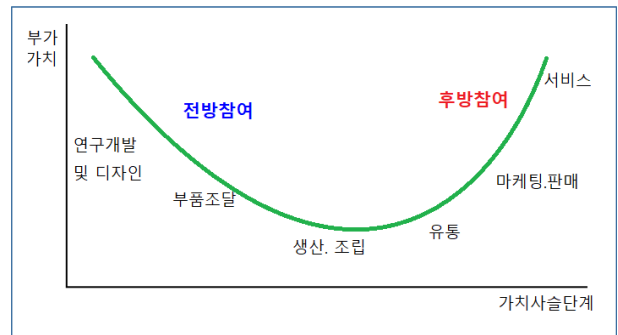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 제품 컨셉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부품조달, 생산·조립, 유통, 마케팅판매, 서비스 등 다양한 단계로 구성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은 하나의 상품·서비스가 생산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참여하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 활동의 총체가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으로 생산이 조직되는 현상으로<sup>2)</sup> 글로벌 가치사슬 선도기업은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분해하여 세계시장에서 각 단계에 맞는 최적 입지에 무역과 투자를 통해 배치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재구성한다.<sup>3)</sup>

[그림 1] 가치사슬의 구성



가치의 생산과정에서 시간 순서상 전반부에 참여하는 것을 전방참여, 후반부에 참여하는 것을 후방참여라 한다.<sup>4)</sup>

세계경제 구조변화의 핵심 요인인 글로벌 가치사슬 현상은 수송비용 하락, 통신수단 발달, 자유무역 확산,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WT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글로벌 가치사슬 교역은 전세계 교역의 74%, 전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게 되었다.<sup>5)</sup>

2) OECD나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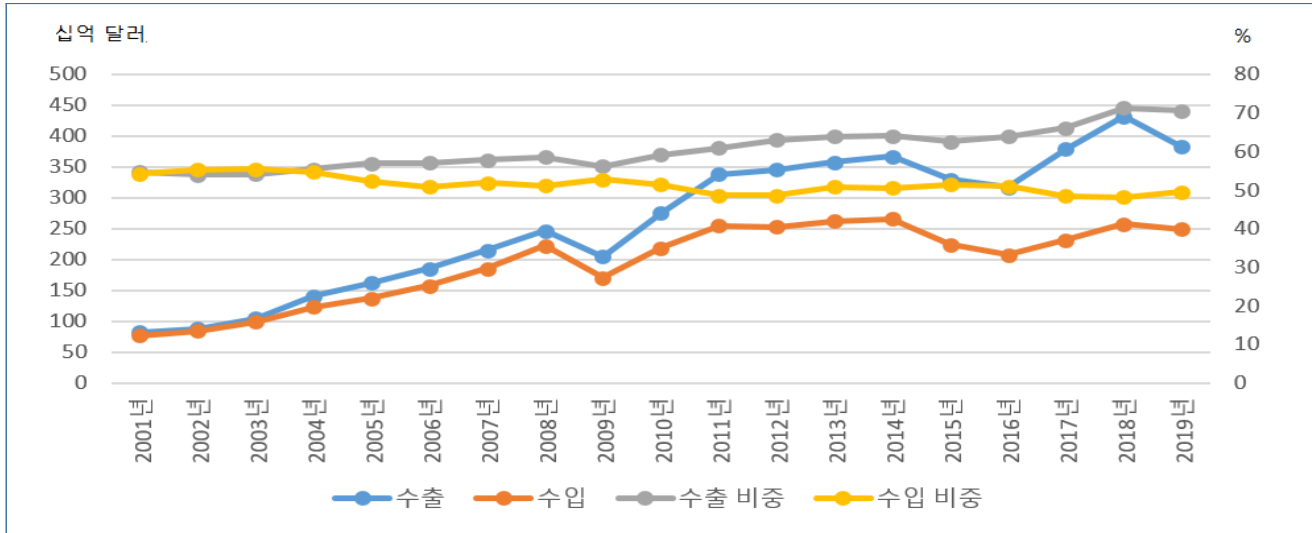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3) 김계환 등, 『주요 대기업 대표 제품의 GVC 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2017.3.

4) 이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전후방산업이라 명명하는 것과 반대 방식이라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곧 전방참여 산업은 후방산업, 후방참여 산업은 전방산업으로 명명한다.

5) WTO, IDE-Jetro, OECD, UIBE, and World bank Group, 『Techn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그림 1]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입 동향(금액, 비중)



※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 2) 우리나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의 사례와 같이 1960년대에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저부가가치 단계인 조립·가공 제조를 담당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술·자본을 축적하며 해당산업의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해가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조립·가공 제조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생산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과 연관되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동향은 중간재 수출입 동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은 2001년 각각 825억 달러와 766억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3,834억 달러와 2,499억 달러로 각각 4.65배와 3.26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동기간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은 54.8%에서 70.7%로 15.9%p 증가하였으나 중간재 수입 비중은 4.7%p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 3)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 및 전망<sup>6)</sup>

세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sup>7)</sup>은 2011년 이후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황이다. 이는 지난 30년 간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확산되어온 글로벌 가치사슬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 감소와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관세 하락의 효과가 한계에 달하여 해외 생산기지 확보의 유인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원가절감에 집중하는 것에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6)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2020년 2월 25일.

7) 일국의 후방참여율은 해당국의 총수출 금액 중 해외 중간재 수출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며 후방참여율은 총 수출 금액 중 외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자국의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비중으로 산출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후방 참여율과 전방 참여율의 합으로 산출 가능하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다. 먼저 중국 등 신흥국들이 소득 증가와 기술 격차의 축소에 따라 최종재의 자국 내 소비와 중간재 자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국 내 인건비도 상승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을 이동하고 있다.<sup>8)</sup> 또한 세계 총 수출로 유발된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 부문에 귀착된 비중이 50.2%에 달하는 등 교역에서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디지털 경제 초기 단계에는 물류비용 절감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나 제조공정의 스마트화와 3D 프린터의 개발이 진행될수록 산업의 인력 의존도가 낮아져 선진국으로 리쇼어링<sup>9)</sup> 현상이 확대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도입은 비대면 경제의 확대를 촉구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 3.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는 신흥국의 역할 변화, 보호무역기조·지역화의 심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서비스업 중심의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속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추세 속에 있으며 양적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무역 의존도 및 중간재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산업전반에 걸쳐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 분포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고부가가치화 전략 수립이 용이하도록 산업별 플랫폼이 형성되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교역 증진의 선결과제인 IT·서비스업 융합 산업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sup>10)</sup>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은 약화되더라도 핵심 소재·부품 및 서비스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단계의 교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전략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산업의 제조설비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축되어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공장 공급 산업의 육성에 있어 천혜의 조건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무역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간 의회 차원의 협조 및 개별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조가 증진될 필요가 있다.<sup>11)</sup>

전은경 입법조사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의회외교 활동 동향 및 비전에 대해 주간으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8)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 이동 시 인건비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거대 소비 시장 역내 또는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비교·분석한다.

9) 리쇼어링(Reshoring)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10) 한국무역협회, 앞의글, 2020년 2월 25일.

11) 전은경, 「디지털 무역플랫폼의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2020년 3월 24일.

